

문화재관람료 폐지가 속심

문화연대 “공원 입장료와 합동징수 부당” 주장 헌법소원 제출

불교계 “입장료 폐지이후 검토하겠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정현 등, 이하 문화연대)가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강제합동징수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해 문화재관람료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문화연대는 3월 20일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심판청구서에서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는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법률유보, 포괄위임 금지 등 헌법의 일반 원리에도 벗어났다”며 “통합징수 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소 심판청구 배경
문화연대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제기한 문제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사찰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부당성과 집행내역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이를 공문화화하고 폐지 여부를 불러 일으키려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사실상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인 셈이다.

문화연대는 헌법소원 제출 직전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행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입장료의 일부를 문화재보수비용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화재관람료 징수내역과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가 해묵은 논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합동징수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승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을 선택한 것으로 비쳐진다.

#적법하지만 불교계엔 부담
조계종은 문화재관리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면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 합동징수가 국립공원 조성 당시 연고권에 근거하고 있으나 어른이 문화재관람료를 폐지를 부추기는 분위기가 맞다. 문화재청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200억원이 넘는 문화재 관리비를 사찰에 지원하고 있는 점도 문화재관

람료의 명분을 희석시키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조계종은 ‘선(先)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원칙에 변함이 없다. ‘사용자 부담원칙’을 고수했던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조계종 관람료위원회 위원장 범여 스님은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해본 바가 없다”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확정된다면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종단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유연한 대응 필요
불교계 내부에서도 문화재관람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월 본지가 불교계 여론주도층과 관람료 사찰 관계

자 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은 이를 방증한다.

설문결과, 폐지 찬성(29명)보다는 반대(38명) 의견이 높았지만 폐지에 반대한 38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더욱이 이해당사자인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 관계자의 80%가 ‘장기적인 폐지’를 꼽았다.

이는 문화재관람료가 자칫 불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문화재관람료 폐지 주장에 대한 조계종의 보다 유연한 대응을 주문한다. 문화재관람료로 인한 부작용을 안으면서까지 원칙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허라 전향적인 대응을 통해 불교의 자생력을 키우고 정부로부터 문화재 유지·보수비 지원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람료 징수사찰인 공주 감사주지장곡 스님은 “장기적으로는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종단은 국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심어주고 정부로부터 문화재 유지·보수비용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이 미소로 살아보자
진불심으로 천진불의 손을 간지럽히고 있다.

조계사가 3월 22일 경내 백송아래 새로 동안한 천진불(높이 150cm)이 불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비둘기 한 마리로 천조계사=박재완 기자

2006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 역사·문화체험

본사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제 3회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미국 현지를 체험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간: 7월 27일~8월 17일(21박 22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3월 25일~5월 15일
- 장소: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주최: 현대불교신문
- 협찬: (재)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 문화체험 - 폴리네시아인속춤 및 공연관람,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자연박물관, 플고레쇼 관람, 훌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 한인이민의 탐사관 사탕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관람
- 해양스포츠 - 와이키키해변 수영, 불교기와 함께 하노우마에이 탐험

문의 / 현대불교신문 사업2팀 (02)2004-8295

“큰 가르침 바로 배울 기회”

‘한암대중사 수행학림’ 17일 시작...매주 접수받아

월정사(주지 정념)와 현대불교신문사 공동주최로 총 6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한암대중사 수행학림’이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월 17일 월정사 대법전에서 시작됐다.

입제식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

님은 인사말을 통해 “학림 프로그램이 한암 스님의 수행법인 ‘승가5칙’(선, 염불, 간경, 의식, 가람수호)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짜여졌으므로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날 프로그램인 ‘한암대중

사 수행 및 선사상 강의’에서 강사로 나선 정념 스님은 “한암대중사의 입멸관”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생사를 자유자재하게 넘나든 한암 스님의 모습에서 완전한 열반을 증득하라는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18일 이어진 ‘화엄산림’에서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깨달고 보면 한 걸음도 옮긴 적이 없으며, 가는 곳마다 본래 자리요, 이르는 곳마다 출발지이니, 이것이 그대로 화엄광명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라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수행학림에는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계층의 불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30여명의 수행학림 수련 프로그램을 참가자들은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두 차례의 강의(법문을 듣고 오대 참배, 철야정진, 참법 및 포살, 삼보일배 등을 하면서 한암 스님의 수행정신을 되새겼다.

‘한암대중사 수행학림’은 4월 24일 까지 매주 금-일요일 3일간 모두 6주에 걸쳐 진행되며, 동참접수는 매주 받고 있다. 자세한 일정은 부타뉴스(buddhanews.com) 또는 월정사 홈페이지(woljeongsar.org)를 참고하면 된다. (033)332-6661~5

관련기사 9·18·19면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대원사 조실 벽봉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부산보현회장 진진호씨

대구에 공부바람 6면

불교기업 왜 없나 10면

전국이 꽃축제 28면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회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크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북장 의식, 상량식, 영가전도, 불사)

부산불교연, 4월 3일 ‘국제신문 후원의 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상·범어사 주지)는 언론보사에 진력하는 국제신문을 후원하기 위해 ‘국제신문 후원의 밤’ 행사를 4월 3일 오후 6시 부산태도호텔에서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란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 1천여명이 동참해 격려하게될 이 자리에서 김광삼 국제신문사장은 국제신문의 향후 비전과 계획을 밝힌다. (051)867-0501 김주익 기자

경산대중사 조사전 기공식 및 대응전 장엄불사 회향법회



학월 경산대중사 진영

귀의 삼보하옵고
역대 고승대덕 크스님들의 법향이 그윽하고 특히 근대 불교정화불사의 핵심 법주셨던 학월 경산대중사님의 습결이 생생한 적조사! 그 법향, 그 법맥 오늘에 되살려 이어가고자, 유서깊은 전통사찰 적조사는 여러 불자들의 원력으로 대응전을 새롭게 장엄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월당 경산대중사님의 영정과 유품을 모시고자 조사전 건립불사를 발원하고, 기공식을 갖고자 하오니 수히 참석하시어 증명하고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응전 삼존 및 후불탱화 점안법회

- 일 시: 2006년 4월 10일 10시
- 법 주: 지일, 우담
- 장 소: 적조사 대응전

◎ 경산대중사 조사전 건립 기공식

- 기공식: 2006년 4월 10일 11시
- 증 명: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가산 지관
- 사 회: 성호

◎ 경산대중사 조사전 건립발원 천일기도

- 일시 및 장소: 매일 오전 10시 30분 대응전

입재	2006년 4월 10일	~	2006년 7월 18일
2재	2006년 7월 19일	~	2006년 10월 26일
3재	2006년 10월 27일	~	2007년 2월 3일
4재	2007년 2월 4일	~	2007년 5월 14일
5재	2007년 5월 15일	~	2007년 8월 22일
6재	2007년 8월 23일	~	2007년 11월 30일
7재	2007년 12월 1일	~	2008년 3월 9일
8재	2008년 3월 10일	~	2008년 6월 17일
9재	2008년 6월 18일	~	2008년 9월 25일
10재	2008년 9월 26일	~	2009년 1월 3일
회향법회	2009년 1월 3일	오전 10:30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적조사 주지 자제 합장
서울시 성북구 돈암 2동 593 전화: (02)924-5362 팩스: (02)924-5363

